
제6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

2014. 5. 28

1. 개요

□ 목적

- 창조경제 추진체로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높은 가젤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 및 토론

□ 일시 : 2014년 5월 28일(수) 14:00~15:30

□ 장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층 국제회의실

□ 주제 : 창조경제 추진체로서 가젤기업 육성

□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 ~ 14:05	개회사	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4:05 ~ 14:10	포럼소개 및 발표자 안내	사회자
14:10 ~ 14:40	주제발표	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
14:40 ~ 15:10	지정토론	좌장 김치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최동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
15:10 ~ 15:30	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5:30	폐회	사회자

2. 개회사 주요 내용(박영아 원장)

- 가젤형 기업은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%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
 - 고용창출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며, 중견기업 수준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시 우리나라의 경제 재도약 가능
 - 박근혜 정부는 ‘경제혁신 3개년 계획’을 통해 가젤형 기업에 총 1조 1,900억원 지원 예정
- 가젤형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
 -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인력, 연구개발,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
 - 정부는 다양한 혁신정책을 통해 가젤형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함

3. 주제 발표 주요 내용(김정홍 연구위원)

- 발표 주제 : 창조경제 추진체로서 가젤기업 육성
- 창조경제의 최종목표는 일자리 창출
 - 개인의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,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의한 창업 및 규모 확대가 가능하며, 기존 산업은 창조산업 및 융합산업 발굴/육성 가능
 -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정책 전환 발생
 - 과거에는 선순환의 역방향을 강조(성장→고용창출)했다면, 현재는 요소 투입으로서의 고용을 강조(고용의 효율적 조정 및 확대→성장)
- 가젤기업의 분포 특성
 - 본 연구에서의 가젤 기업 정의

- 종사자수 10인 이상, 최근 5년간 고용창출 기여도 상위 10% 이내의 기업(Birch Index)
- 가젤기업 중심의 선순환체계 구축 모델
 - 가젤기업의 정의 및 분포 확인, 가젤기업이 선호하는 입지결정요인 파악을 통한 모델 구축
 - 외생적 입지경쟁력 개선 ⇒ 기업유치 및 창업활성화 ⇒ 내생적 혁신지원으로 가젤기업 육성 ⇒ 신규 가젤기업 유치 및 전후방연관산업 육성 ⇒ 지역산업 성장 ⇒ 외생적 입지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
- 상위 10% 가젤기업이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일자리 생산(고용보험 DB)
 - 우리나라 가젤기업 종사자 수는 2007년 평균 191명에서 2012년 371명으로 약 2배 증가
 - 비가젤기업 종사자수는 동기간 56명에서 52명으로 평균 4명 감소
- 산업별로는 주력기간제조업(기계, 자동차 등), 지식기반제조업(전자정보기기, 메카트로닉스 등) 및 지식기반서비스업(IT서비스, 기업지원서비스)에 많이 분포
- 지역별로는 서울, 대전, 울산, 광주 등 대도시에 많이 분포

□ 가젤기업 육성 방안

- Two-Track에 의한 중소중견기업 육성
 - 창업 활성화 지원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가젤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양 기업군 간 예산 안배 및 정책지원 병행 필요
- 준가젤기업의 선정 및 가젤기업 도약 지원

- 육성대상 준가젤기업군을 선정하여 가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‘지방 가젤기업 육성사업’ 등의 방안 필요
- 기업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입지공급 필요
 -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적을 위한 도심 내 빌딩 형태의 임대형 빌딩 (오피스파크, 리서치파크) 조성 필요

4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□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의 차별성 필요

- 기존에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상황
- 가젤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준가젤형 기업 중 글로벌 혁신 능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
 - 중견기업을 대상하기 보다는 ‘가젤’의 단어적 의미에 맞는 기업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성 존재

□ 특정유형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및 장단점

- 특정기업을 선발하여 지원을 하는데 있어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
 - 특히 가젤형 기업 육성 방안 수립시 과다 특혜 논란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
 - 이미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군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존재
-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

- 지원대상 기준 설정 및 지원 프로그램(자금, 컨설팅, 마케팅, 인력 등) 개발

□ 가젤형 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

- 민간R&D 투자 활성화는 가젤형 기업 출현의 씨앗
 - 초고성장 기업일수록 기업의 R&D투자가 기업 성장에 큰 원동력 중 하나로 나타남
- 창업자의 출구전략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필요
 - 창업자들이 기술개발 후 초기단계에 exit 할지, 직접 사업화를 할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필요
 -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거래의 비용이 높은 상황이라 exit 전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 존재
-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
 - 정부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병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정책 필요
 - 지식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